

CHUNG HYEON

두 달 반 만에 복귀한 정현, 경기력은 난항

정현이 7월 23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애틀랜타오픈에 와일드카드를 받고 출전했다. 정현이 투어에 복귀한 것은 지난 5월 무투아마드리드오픈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었다. 3번시드를 받고 부전승으로 애틀랜타오픈 1회전을 통과한 정현은 2회전에서 테일러 프리츠(미국)를 6-4 7-6(5)로 꺾으며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정현의 공백기간을 고려하면 이날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풋워크는 매우 가벼웠고 포핸드와 백핸드는 프리츠가 라켓을 못 댈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다.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는 끈질긴 수비도 여전했다. 특히, 서브에서 공백기를 갖기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현은 “복귀전에서 승리해 매우 기쁘다. 경기 전까지 긴장도 많이 했고 설레기도 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8강에서 라이언 해리슨(미국)에게 7-6(3) 2-6 6-7(5)로 패했다. 정현은 3년 전 해피밸리챌린저에서도 해리슨에게 첫 세트를 선취하고 역전패 당했는데 이번에도 설욕에 실패했다.

워싱턴 D.C.로 날아가 8번시드를 받고 시티오픈에 출전한 정현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고 2회전에서 마르코스 바그다티스(키프로스)에게 6-7(2) 6-4 6-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정현은 “대회 첫 경기는 항상 힘들다. 역전승을 거둬 매우 기쁘고 3세트 경기를 했지만 경기를 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16강에서 자신보다 세계랭킹이 낮은 당시 세계 72위 알렉스 드 미나르(호주)에게 2-6 6-4 2-6으로 졌다. 드 미나르는 정현과의 경기 당일 날 32강을 치른 상태라 정현의 체력적인 우위가 예상됐지만 정현은 이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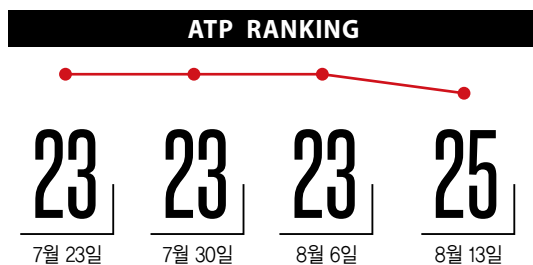
이어 정현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로저스컵 1회전에서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의 대결이 성사돼 국내 테니스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지난 호주오픈 이후 약 7개월만으로 상대전적은 1승 1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정현은 경기 직전 등 부상으로 기권해 조코비치와의 맞대결이 무산됐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지 몸을 추스른 정현은 8월 13일부터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웨스턴앤서던오픈에 예정대로 출전했다. 1회전에서 잭 삭(미국)을 만난 정현은 첫 세트를 2-6으로 내줘 패색이 짙었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 뜻밖의 기회가 왔다. 게임 스코어 2-1에서 정현은 백핸드 다운더라인 등을 앞세워 세 차례 듀스 끝에 잭 삭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해 3-1로 앞서나갔다. 이어 잭 삭이 메디컬 타임을 요청해 허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잭 삭은 허리 통증 탓인지 제대로 서브를 넣지 못했고 정현의 공도 전혀 쫓아가지 못했다. 정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볍게 연속 세 게임을 따 세트율을 만들었고

세 번째 세트에서 날카로운 스트로크로 잭 삭을 압박해 경기를 마무리했다.

다음 상대는 세계 3위 후안 마틴 델 포트로(아르헨티나). 정현은 “델 포트로 세계적 선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애초 정현과 델 포트로의 경기는 8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하루 연기됐다. 16일 경기를 앞두고 또다시 비가 내려 경기 시간이 지연됐고 우여곡절 끝에 예정 시간보다 약 두 시간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 정현은 2-6 3-6으로 델 포트로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이날 패배로 정현은 톱10 상대 1승 5패를 기록하게 됐다. 정현의 패인은 불안한 서브였다. 더블폴트 4개를 범했고 서브 에이스는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첫 서브 성공률은 63%, 첫 서브 득점률은 57%로 다소 저조했다.

정현은 8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ATP투어 250시리즈 윈스턴세일럼오픈에서 US오픈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US오픈이 끝나면 청두오픈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리즈에 출전할 예정이다. 글_ 박준용 기자 사진_ Alex Smith/BB&T Atlanta Open



7월 23일~8월 19일 정현 성적표

대회명	성적	랭킹 포인트
애틀랜타오픈	8강	45
시티오픈	16강	45
웨스턴앤서던오픈	32강	45

정현 9월 스케줄(예정)

날짜	대회명	장소	지난해 성적
8.27~9.9	US오픈	미국 뉴욕	2회전
9.24~30	청두오픈	중국 청두	첫 출전



칸으로부터 유니폼을 받은 정현

애틀랜타오픈에 출전 당시 정현이 미국 축구리그 MLS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골키퍼 알렉 칸(미국)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